



기획시리즈



임경빈  
아카시아연구회장

# 조경수목산책 (X V)

— 소나무 —



▲강릉, 회산동, 서낭당 소나무, 1989. 1. 24

## 1. 소나무, 솔나무

소나무는 솔나무, 솔낭구, 소낭구, 솔 등의 별칭이 있는데 「솔」이 「소」로 변음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솔」은 영어의 브러쉬(brush)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뚝솔, 칫솔, 옷솔, 머릿솔 등 우리 주변에는 각가지 솔들이 있고 그 쓸모가 넓다.

지난날 우리 민족은 목화를 재료로 해서 만든 무명 흰 옷을 많이 입고 살아왔다. 필자의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무명옷 시대였고 바지, 저구리(저고리의 사투리)를 입고 자라났다. 옷감에 대해서는 지식이 알아 별로 할 말이 없으나 알고 있기로는 그 뒤 광목, 옥양목, 인조견, 스테이블화이버라는 것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레이온, 나이론 등 귀에 익은 명칭이 또한 많다.

무명을 짜기 전 무명실에 솔로 풀칠을 하고 이것을 덩기불(겨불의 사투리)로 건조시킨 뒤 솔슬도꾸마리(도투마리의 사투리)에 감아 나간다. 도꾸마리는 공(工)자형으로 된 건데 그것도 소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사용하는 솔이 소나무 잔털뿌리로 만들어졌고 옅은 갈색으로 보인다. 이 솔이야말로 우리가 그간 옷을 입게 되는데 필수적인 도구의 하나로서 보기에는 하찮으나 그 기능은 작업과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었다.

1989년 양력 정월에 강원도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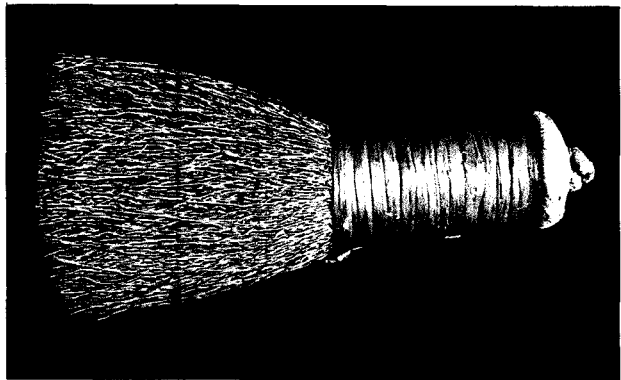
릉 회산동에 간 일이 있다. 그 마을에는 큰 오래된 소나무 몇 그루가 모여서 서낭당 나무를 이루고 있었고 그 나무들은 일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연리(連理)를 만들고 있는 것이 신기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서낭당 나무를 매우 숭배하고 있었다.



▲ 아름다운 줄기. 강릉 회산동. 1989. 1. 24

그때 동제용의 제수를 마련하던 집에서 벽에 걸려있는 무명 길쌈솔을 보고 나는 그것이 이미 지난날의 상징적 유물이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짐작하고 또 두 개나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한 개의 기증을 부탁했더니 아주머니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종이에 싸서 주었다. 나는 그 대금을 내놓을 뜻을 비쳤으나 그 분은 한사코 거절하고 그에 대해서 대나무 쪽지로 만들어진 바디(길쌈에 쓰는 도구)까지 하나 주면서 이번 행사의 기념으로 보관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주머니의 이러한 아량을 감사하면서 받았다. 사실은 그 뒤 나는 무언가 선물을 보내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지를 못했다. 인정머리 적은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그 솔뿌리로 된 솔의 모습을 사진으로 이곳에 보인다. 이러한 솔은 우리 민족의 산촌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어간 생활문화의 귀중한 도구로써 집집마다 그것을 소중한 도구로 다루었다.



▲ 무명실 직조 때 쓰는 풀솔. 강릉 회산동에서. 1989. 1. 24

필자는 이곳에서 너무나 지루하게 소나무와 상관이 적은 말을 늘어놓았는데 하고 싶은 말의 초점은 이 『솔』을 바탕으로 해서 솔나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와음(訛音)되어서 소나무로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겠는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누구는 솔잎을 모아 다발로 해서 솔처럼 썼기 때문에 솔나무로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요컨대 소나무는 솔과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생각해 본 내용이다.

## 2 강릉 회산동의 소나무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회산동의 소나무는 논이 있는 별판한 곳에 서 있다. 서 있는 곳의 기반은 다소 높아서 배수는 잘 될 것으로 보았다. 땅이 깊어 솔뿌리는 깊게 자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땅이 깊으면 소나무의 뿌리는 깊게 들어가고 뿌리 깊은 소나무는 크고 높은 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회산동의 서낭당 소나무는 그러한 곳에 서 있고 쪽 뻗어 올라간 붉은 줄기는 절작의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모양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서나 색깔에 있어서나 나이에 있어서나 정말 소나무다운 소나무로써 깨끗하고 품격이 있고 고결하다고 할 수 있다.



▲ 회산동 서낭당제. 고침사(告淸祀). 1989. 1. 24

이 서낭당 나무 둘레에 장막을 치고 솔과 떡 그리고 포와 생육(生肉) 등을 차려놓고 밤중에 올리는 동제(洞祭)를 참관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이 나무들이 동민에게 베푼 은혜가 막중했고 앞으로 내려줄 복이 지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동민들이 올리는 경근(敬謹)한 제례(祭禮)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처럼 노거목(老巨木)을 중심으로 해서 동민들이 집결하고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저생활문화(基底生活文化)의 핵을 형성하는 소중한 산물이고 이 핵이 서로 연결되어 민족성의 통일이 이루어져 갔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회산동의 소나무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멀리서 이 서낭당 소나무 숲을 바라보면 그것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숲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가

를 빌었다.

## 3 강릉 방해정의 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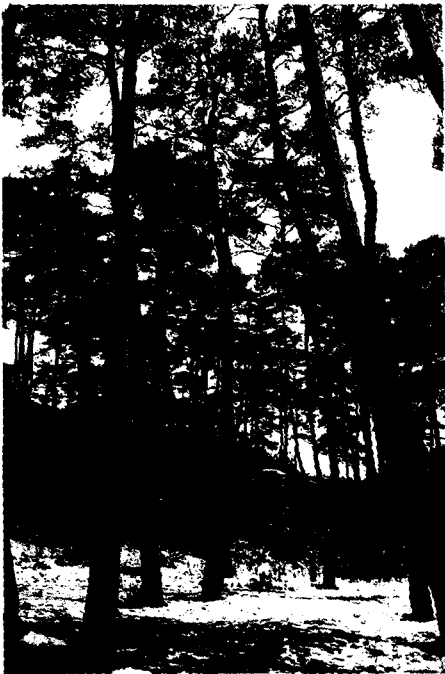
강릉 부근에는 원래 해송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하자면 강릉은 소나무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해송이 무리를 지어 곳곳에 자라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심어 준 것이지 해송 스스로가 이곳까지 온 것은 못된다고 생물학자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강릉부근 또는 그보다 더 북쪽 편에 가령 금강산의 소나무 등은 해송의 핏기를 받을 만한 기회는 과거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수지구(樹脂溝)의 위치로만 단정하는 교잡 근거는 속단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방해정(放海亭) 부근의 소나무는 외형적으로 볼 때 형질이 뛰어나다고 본다. 그다지 굵지 않은 줄기가 높게 자라고 줄기에 붉은

아랫가지가 없어 미끈한 맛을 주는 것은 이곳 솔 숲의 자랑이라 할 수 있고 경관적으로도 아름답기 짝이 없다.

강릉 주변에 있는 이 솔 숲은 과거 인간 간섭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믿어진다. 이처럼 소나무는 그 생태가 스트레스 집단으로서 그간 간섭을 받아오면서 다른 수종 군을 이겨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근처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그러한 손쉬운 숲에 고통을 주지 않고서는 그들의 생활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었다.

눈이 와서 흰 눈이 곳곳에 쌓여 있는 방해정의 솔 숲 사이를 나는



▲강릉 방해정의 솔 숲. 1989. 1. 25

걸었다. 아무도 없는 숲에서 줄기에 손을 대면서 지나가노라면 머리 위에서 솔 가지 사이를 지나가는 겨울 바람 소리가 들려 오고 있었다. 소나무, 찬 겨울바람, 흰 눈, 적막감 등은 하나가 되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래 머무는 것이 좋고 시간 개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조용히 걸어갔다. 모든 소나무가 자아내는 분위기의 덕분이다.

#### 4. 불영사 계곡과 해인사의 소나무

이곳에 불영사와 해인사의 소나무를 묶어서 설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영사 계곡의 아름다운 소나무 숲은 태백산맥계의 소위 금강송 또는 춘양목으로 말하는 계통의 소나무로 볼 수 있고 해인사 근처의 소나무는 소백산맥계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나무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일부에 분포하고 있는 극동의 소나무 종으로 볼 수 있다. 이 나무의 생태 즉 생활방식 또는 생활 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나무를 많이 연구한 바 있는 우에끼 교수의 설명은 지금에 있어서도 한 번 저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에 우에끼 교수의 견해를 소개해 본다.

『소나무는 조선에 나는 침엽수 중 은행나무 다음으로 큰 나무로 되고 줄기 직경 1m 이상의 명목(名木)만도 170그루 이상에 이르고 있고 흉고직경 1.2m 이상의 것은 100그루를 넘고 약 반은 남한에 또 약 반은 북한에 있다. 직경이 가장 큰 것은 2m에 이르고 수령은 400~500년까지 달할 것으로 본다. (필자 주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굵은 줄기를 가진 속리산 정이품송도 이에 뒤진다.)

조선(당시 조선으로 표현)에는 소나무 순림이 많은데 이것은 기후 풍토가 소나무의 생육에 알맞은 탓에 있다. 그러나 소나무가 순림을 형성하는 데에는 긴 세월의 경과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만일 소나무의 순림에 사람이 손을 전연 대지 않고 그대로 20~30년쯤 방치한다면 그 숲은 틀림없이 활엽수종과 혼교하게 되고 나아가 100~200년을 지나게 되면 소나무는 추방되어 없어질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한국의 낮은 땅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될 활엽수종을 들여보면 신갈나무, 즐참나무, 갈참나무와 같은 참나무류 그리고 서어나무류, 물푸레나무, 엄나무, 당단풍나무, 진달래류, 박달나무, 오리나무, 귀룽나무, 산벗나무, 쪽동백나무, 때죽나무, 피나무, 개웃나무, 기타 만경식물이 있다.

이러한 활엽수종은 한국 각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활엽수종의 임상이 파

괴되고 공지가 생기고 그곳이 다소 건조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있었던 소나무 종자가 날아와 짝이 트게 될 것이고 활엽수림의 일부를 점령하고 기회를 보아 그 수는 증가해 나갈 것이다.

강원도에 들어가서 좀 높은 산을 답사해 보면 산기슭 쪽에는 소나무의 순림을 볼 수 있고 산허리 쪽에는 활엽수림을 볼 수 있으며 그 경계지대에서는 소나무와 활엽수종이 혼교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이러한 숲을 이용하게 되면 소나무는 활엽수종을 이겨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심근성이고 건조에 견디는 활엽수종은 소나무와 경쟁을 하면서 남게 된다. 소나무가 없는 곳에 이러한 수종이 남아 독라지의 지배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 수종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다. 팔배나무, 노간주나무, 나무딸기류, 붉나무, 누리장나무, 진달래류, 사시나무, 싸리류 등이 있다. 만일 이러한 종류의 수종만으로 된 곳이 있다면 그곳 임지는 황폐가 진전된 것이고 이러한 곳이 간섭을 계속 받게 되면 황폐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한 곳에 그곳 수종의 종자를 뿌려 주면 짝이 트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 수종이 그곳에 형성될 때에는 아직 토양조건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 짝이 트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날보다 토지가 더 황폐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현재 소나무가 서 있는 곳일지라도 그 토양 조건은 지난날보다 퇴화해서 다시 소나무를 나타나게 하지 못할 정도로 된 곳이 있다. 소나무 종자는 수광량이 있는 노출된 광물질 토양에 떨어지고 봄철 눈 녹은 물이라도 있어 토양 수분조건이 알맞으면 짝이 트게 된다. 그러나 지표식물이 있는 곳에 떨어진 솔씨는 발아가 불가능해진다. 소나무는 양수라고는 하지만 노령림의 그늘 아래에서 치수로 발달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강해서 소나무는 가시나무류와 동백나무 등과 혼생(混生)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에 설명한 우에끼 교수의 관찰과 견해는 지금에 있어서도 그대로 맞아들어가는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소나무 지대의 천이(遷移)의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이보다 앞서 혼다

(本多) 교수도 우리나라 온대림의 천이를 논한 적이 있다. 이곳에 혼다 교수의 진술을 펼쳐 볼 여유가 없다.

여기에 필자는 소나무의 생활 전략에 관련해서 몇 장의 사진을 제공했다. 먼저 1987년 9월 촬영한 경북 불영사계곡의 소나무 숲을 보면 첫째 소나무의 형질이 형태상 우량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앞쪽에 치수들이 뻗뻗한 밀도를 유지하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임학에서 말하는 천연하종갱신(天然下種更新)으로 그 갱신이 무척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성공의 바탕이 되는 이유로서는 첫째 큰 나무(親世代의 나무)가 알맞은 밀도로 그곳에서 있었고, 둘째 그 주변에 어떤 이유든지 공지가 만들어져서 광물토양이 노출되어 있었고, 셋째



▲천연갱신이 되고 있는 불영사의 소나무 숲. 1987. 9. 27



▲ 소나무와 굴참나무. 불영사.  
1988. 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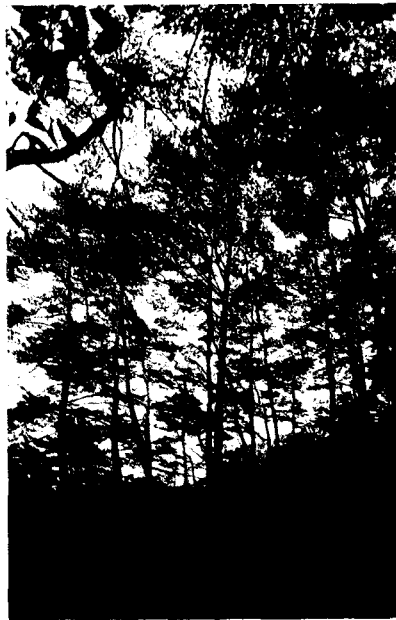
때를 맞추어 어느 해엔가 종자가 많이 맺고 그것도 생활력이 높은 종자였다든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위 삼박자가 맞아서 천연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나무의 천연갱신을 위해서 우리는 위에 말한 조건을 인공적으로 유도하도록 시도하지만 그 조건 맞추기가 쉽지 않다.

다음 1988년 4월 중순경에 촬영한 사진이 제공되어 있는데 이 숲은 소나무와 굴참나무의 혼효림으로 그 사이에 경쟁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상황은 앞에 우에끼 교수의 설명의 한 장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숲은 불영사라는 사찰 주변의 경

관가치를 높여야 할 사찰림이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람의 간섭이 주어져 소나무에 더 이로운 조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대로 둔다면 굴참나무 등 활엽수종이 세력을 얻게 될 것이다.

1994년 7월 26일에 촬영된 해인사 농산정(籠山亭) 근처의 소나무 숲 사진은 성기게 서 있는 소나무의 성숙림 하층에 활엽수종이 침입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쯤 되면 상층의 소나무에서 종자가 떨어져도 싹이 틀 수가 없고 소나무의 세대교체는 불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활엽수종은 세력을 얻어 피도(被度)가 증가해 나가고 끝내는 소나무를 밀어내고 그곳의 주인공 노릇을 하



▲ 활엽수종이 들어선 소나무 숲.  
해인사 농산정. 1994. 7. 26

게 된다. 소나무와 활엽수종의 경쟁을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아름다운 소나무 사찰림은 사라져 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무언가 손을 써서 소나무를 도와 좋은 경관을 만들고 종교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미래에 있어서 활엽수종의 거목들이 들어선 숲이 더 바람직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1994년 6월 15일에 찍은 설악산의 소나무를 사진으로 보인다. 이것은 소나무가 원래 나타날 때의 토양조건과 그 뒤의 변천과정의 결과를 대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소나무의 뿌리 중 지표면을 따라 뻗고 있던 결뿌리가 많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 뿌리는 처음부터 땅 위를 기어간 것은 아니다. 자라날 당시는 땅 속을 기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비바람의 영향 그보다도 더한 인간의 행위로써 표토는 유실되고 이처럼 뿌리가 노출된 것이다. 우리는 이 나무의 나이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몇년 동안에 몇 cm 깊이의 흙이 유실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소나무 뿌리는 원래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처럼 노출되어도 살아갈 수 있으나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못된다. 토양조건의 변화에 이곳 소나무는 살아가는 태도를 적응해서 견디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흙으로 노출된 뿌리를 덮어준다는 것은 오히려 옳지 못하다.



▲ 토양유실과 뿌리의 노출 설악산. 오색-대청봉 사이, 1994. 6. 15

## 5. 남산의 소나무

서울 남산을 상징하는 나무로 우리는 소나무를 생각하게 된다. 애국가에도 나타나지만 지난 세월 수백년 동안 남산에는 소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소나무를 심어오고 보호해 온 역사가 있어서이고 지리 풍수상 남산 등 내사산(內四山)에는 소나무가 무성하여야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정기(精氣)가 양축(養蓄)되고 그로부터 나라의 힘이 발로된다는 데에 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남산 마루에 높게 솟아 들어선 소나무의 푸른 수관(樹冠)은 아름다움의 절정을 연출하였고 지나가는 흰 구름, 교묘하게 비치

는 달빛, 흰 장막처럼 내리는 빗줄기, 병풍처럼 겨울 찬바람을 막아내는 기세 등등은 남산 소나무의 경취(景趣)를 돋구어 주었다.

서울의 남산은 서울 시민의 간이며 허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매우 타당한 표현이다. 서울에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그들은 한결 같이 남산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에 남산은 고향을 상징하는 가장 뚜렷한 윤곽이며 색깔이었고 놀랄만한 자연의 요소였다.

서울은 풍부한 수량(水量)을 가지고 도도히 흐르는 한강과 그 주변에 전개되는 풍요로운 농경지 그리고 서울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수려한 산악 등은 이곳이 예사로운 곳이 아님을 잘 말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편한 곳임을 또한 알려 준다.

서울이 나라의 수도로서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뜻을 가지게 된 것은 태조가 1394년 10월 25일 개성을 떠나 새로운 도읍지 서울에 10월 28일 도착함으로써 주어지게 된다. 태조는 새로운 도읍지를 만들면서 국력의 융성과 땅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내외사산(內外四山)의 숲 특히 소나무를 보양할 것을 결정했다. 그 중 남산은 동서방향으로 약 2.7km, 남북방향으로 약 2.1km의 거리에 이르는 비교적 낮은 산(잔구, 殘丘)이다. 남산의 북동쪽은 약 1억 5천만년 전에 만들어진 화강암이 널려 있고 남서쪽은 약 20억년 전에 만들어진 편마암이 분포하고 있다.

### (1) 남산의 소나무 그 수난의 역사

고려 10대왕 정종(靖宗) 1034년 조에 『서울의 명산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금벌(禁伐)하고 두루 식재를 하도록 하라』는 대목이 있고 1036년 조에도 『禁內外名山樵採』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남산의 보호정책을 읽을 수 있다.

조선조 태종 11년 조에는 장정 3천명으로 하여금 스무날 동안 서울 남산과 태평관 북쪽에 소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경제육전(經濟六典)시대(1392-1469)의 일이며 비교적 조선조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당시 남산의 숲이 어느 정도 황폐해 있었음을 말해주고 또 소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소나무 숭상의



▲ 남산에 심어 준 소나무 1995. 봄

사상을 읽을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것이 1467년 세조 13년 때인데 그 안에 서울 내외사산의 나무의 금벌 조항이 들어 있다. 당시 양성지(梁誠之)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산 기슭에서 태조 이래 이때까지 70여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남산에 수백 그루의 큰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귀천을 막론하고 낮에도 산에 들어가 생소나무를 마구 베고 있다. 간악한 무리들의 도끼 소리가 요란하다.」 이것을 보면 조선조 초기에는 남산에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나무가 계속해서 침해를 받은 모양이다. 중종 34년(1536)조에 「사대부들이 사산금송(四山禁松) 하는 곳에 들어가 소나무를 마구 끊어내니 한탄할 일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때는 모두 경국대전 시대(1470-1744)의 일이다.

영조 41년(1765) 조에 다음이 있다.

「京城十里內 松木犯所者 依律定罪 …」 벌칙이 엄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소나무의 수난이 심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숙대전(續大典)시대(1745-1863)의 일이다. 그 뒤 이어서 대전회통(大典會通)시대(1864-1910)에도 남산 소나무의 수난은 있었을 것이다.

## ② 남산의 자연, 그리고 소나무

남산은 크게 높지는 않으나 그 모습이 단아하고 지형이 비교적 다양해서 그 안에 각종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을 만든 이행(李荇)의 집은 목멱산(남산) 기슭의 청학동에 있었다고 한다. 의정부의 우의정의 벼슬을 한 그의 집 뒤에는 병풍바위와 반석(盤石)이 있어서 유취의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고 길 양편에는 소나무, 전나무, 복숭아나무, 버드나무를 심어 가경을 만들었다고 한다.

전나무와 버드나무가 남산의 기슭에 심어졌다는 건데 지금은 전나무의 자취가 없는 것으로 안다. 남산의 나무들이 자연 그대로만 생겨나고 자라나고 죽어간 것이 아니고 다소를 불문하고 인위적인 도입도 있었을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남산팔영(南山八詠)이 있었고 그 중 몇 개를 다음에 뽑아본다.

### ① 영산장송(嶺山長松)

남산 위에 솟아난 소나무들의 위용의 수려함을 읊은 것이다.

白夜靜月篩清壁  
백야정월사청벽

이 시구는 남산의 소나무와 달밤의 그윽한 조화의미를 절찬한 것이다. 밝은 달밤에 남산의 소나

무 숲은 맑은 옥들을 채질해서 땅위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나무와 둥근 달, 남산 아경의 절정이다.

### ② 구월등고(九月登高)

구월 구일에 산에 오르는 전통적 습속이 있는데 이때 서울 시민들은 접근이 용이한 남산을 택한 모양이다.

楓林酣遠壑 풍림감원학

단풍진 숲은 먼 골짜기를 가득히 메우고

松色護層丘 송색호층구

소나무 푸른 색은 층층이 언덕을 덮었더라.



▲ 소나무 복원 식재, 서울 남산. 1995. 11. 4



남산의 가을 단풍과 푸른 솔이 어울리는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이때도 활엽수(단풍지는 나무)는 낮은 곳에, 소나무는 위쪽이라는 생태가 잘 묘사되고 있다.

필자는 1978년 남산공원수림의 조사연구보고서에 당시 남산에 생육 중에 있던 소나무 노거목 7그루를 선정하여 남산 소나무 번식집단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남산의 소나무는 남산 소나무를 어버이로 한 그 후예에서 얻어 나가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나 그 존재의 의의에 있어서 매우 타당하다.

선발된 소나무 모수는 당시(1978년)의 수령으로 55년 내지 109년 평균 81년이었고 수고는 평균 15m, 흉고직경은 29cm였다. 이 나무들은 약 40-50년까지는 왕성한 자람을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성장이 느려지고 5-6년간 계속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받아 수간 주입의 처치를 받기도 했다. 이 나무들의 외부형태를 앞의 사진으로 보인다.

### (3) 남산의 숲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산 자연의 참된 모습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에는 3가지쯤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즉 다음과 같다.

① 서울이 조선 왕조의 수도로 된 이래 지금까지 약 600년 그 중에서도 조선조 약 50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지녀온 그 상태를 참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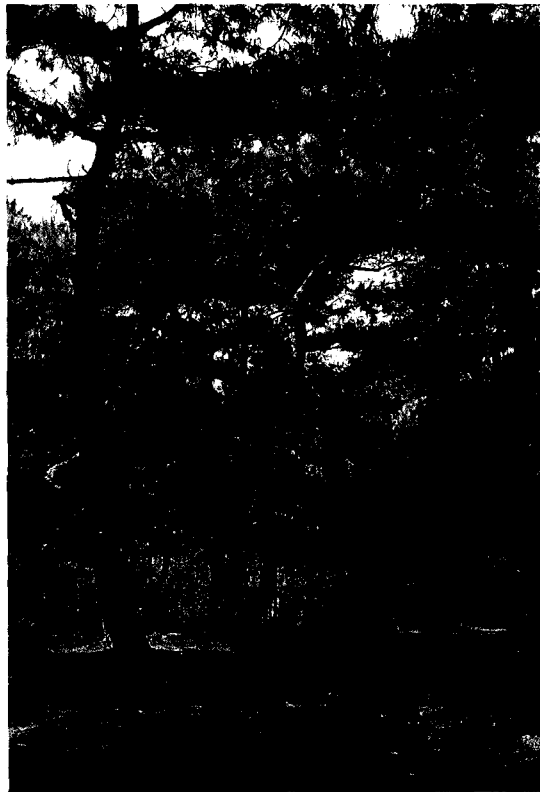
습으로 보는 시각이다. 500년간 우리의 선조들이 보아온 그것을 참된 모습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에는 인간의 간섭을 받아 고생한 남산의 숲의 저항도 있었고 그 간섭으로 고무되어 기운을 얻어간 숲의 생리도 있다. 꾸준한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조화(調和)의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해 오면서 우리 민족의 소나무 문화를 만들어 온 그 숲이 남산의 제모습이다.

② 자연생태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다 또 변화하다 끝내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여 극상상태(極相狀態, climax stage) 즉 항상성

을 보이는 숲을 제모습으로 보자는 측면이다. 이것은 극히 생물학적이며 비인간간섭적(非人間干涉的)인 내용으로 된다. 그렇게 될 때에는 참나무류가 주종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건강한 상태로 보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③ 인간의 기호에 따라(기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무를 이리 심고 저리 심어 인공적인 풍치림을 만들어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시민이 즐기는 인기있는, 말하자면 그 시대의 일반 시민들이 즐겁게 받아들이는 나무와 숲을



▲남산의 솔 숲. 1995.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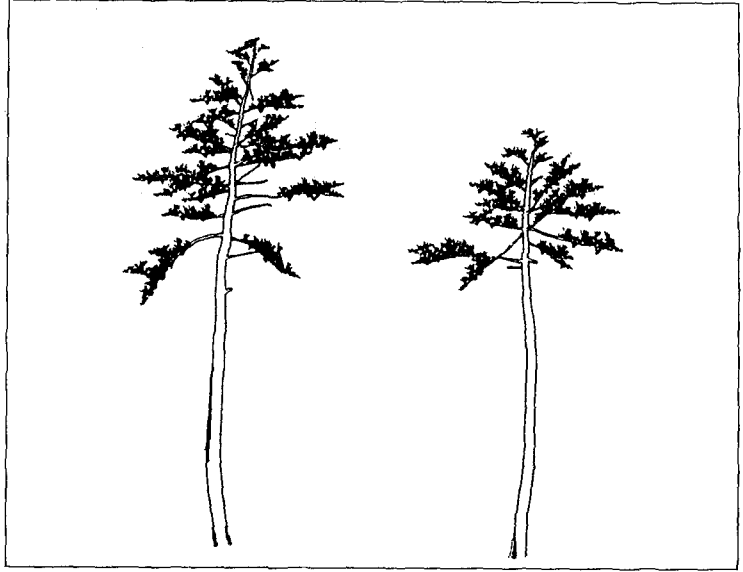
좋은 모습으로 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제1안에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고찰해 온 내용 즉 남산의 경관가치가 오랜 세월동안 소나무 위주라 해서 남산의 대부분을 소나무로 덮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처럼 남산에 지나친 인간 간섭을 해서 그 결과 얻어지는 간섭집단을 감상하지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에 한계와 강도(強度)가 있고 이것은 생물학적인 기반 위에서 검토되고 조절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남산의 지형을 조사해서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무더기 풀로 또는 줄로 재생시켜 지난날의 경관을 되살려 보는 시도는 수용될 수 있다. 앞으로는 남산의 오래된 소나무에서 종자가 떨어져 다음 대의 솔 숲이 나타나도록 유도해 볼 필요도 있다. 기술과 인내가 요구된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남산의 식생은 오랜 세월을 소비하면서 이루어낸 귀중한 소산인 것이다. 이에 함부로 손을 댄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지금의 남산은 아름다운 숲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사이사이에 좋은 냉온대중부 지방의 활엽수종(될 수 있으면 남산에 기존하는 수종, 가령 팔배나무, 쉬나무, 느티나무, 벗나무, 참빗살나무, 음나무, 참나무류 등)을 적지에 도입하는 일은 좋다고 본다.

남산 위의 신갈나무 숲은 학술



▲남산 소나무의 전형적 형태

적으로 극히 소중한 존재임을 부연해 둔다.

수림이란 것은 물리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토목공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섬세하고 정교한 신비스러운 생명체계임을 인식하면 된다. 외국 수종이라 해서 무조건 배타적으로 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산의 숲은 되도록 자연림의 상태로 배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5년 11월 4일 옥림의 날을 기념하여 남산의 남쪽 산기슭에 남산의 제모습을 찾는다는 기치 아래 전국에서 모아 온 소나무를 80그루 가까이 심었다. 이것은 남산 소나무의 복원이란 면에서 뜻을 지닌다.

## 6. 소나무의 보호정책과 표석

이곳에서는 조선조시대 소나무 보호에 대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금산(禁山), 봉산(封山), 향탄산(香炭山)이 있었고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숲에는 표석(標石)을 만들어 세웠고 그 중 몇 개는 오늘날까지 남아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게 인정되고 있다. 금산이란 용어는 일찍 경국대전에 나타나고 그 뜻은 우량한 소나무를 보호하여 왕실 또는 국가적 소용에 충당하고자 한 산림인데 일반인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봉산은 금산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진 것인데 조선조 후기 특히 영조, 정조 때 빈번하게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황장봉산(黃腸封山), 선재봉산(船材封山), 울목

봉산(栗木封山), 향탄봉산(香炭封山) 등 용도에 따른 명칭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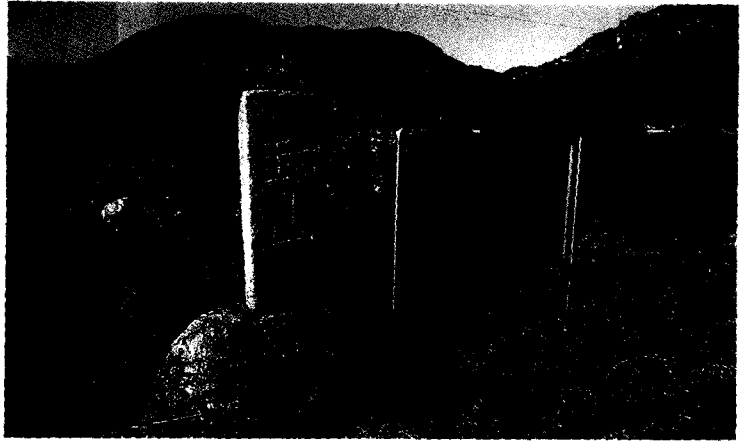
현재 이러한 금산, 봉산을 표식하는 표석이 몇 곳에 남아 있고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 (1) 문경군의 봉산 표식

경북 문경군 동로면 명전리 188-1에 있다. 이 표석이 건립된 때는 숙종조,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필자는 이 시기의 고증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높이 1m, 폭 0.4m, 두께 17cm, 지대석 높이 1.1m의 화강암에 封山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이 표석은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자료 제 227호로 1990년 8월 1일에 지정하고 있다. 이 표석은 경북과 충북의 경계선에 가까운 평평한 곳에서 있는데 주변은 논이다. 멀지 않은 곳에 황정산(皇庭山)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현재 그 산 이름을 황장산(黃腸山) 또는 황장봉산(黃腸封山)으로 부르고 있고 간단한 홍보용 팜플렛에도 황장봉산으로 나타내고 있다.

황정산은 화강암으로 된 비교적 낮은 산으로 지금 상황으로는 황장목 감의 소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표석은 1989년 4월에 동로면 간송리에 사는 하정학(河正學)씨가 논에서 발견한 것으로 1991년에 이것이 정비되고 건립된 것이다. 단지 봉산



▲ "封山" 표석 문경군 동로면 명전리 188-1 1995. 11. 27

이라는 두 글자뿐인데 이미 지난 날에는 이 부근의 산에는 좋은 소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문경문화원에서 낸 교육용 책자에도 황장산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일단 황정산(皇庭山)이란 산명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 (2) 영월군의 황장금산(黃腸禁山) 표석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두산 2리 황장골 마을에 있는 표석이다. 마을 이름이 이미 황장목 생산을 뜻하고 있다. 이 표석은 길이 15m쯤 되는 황정교 모퉁이에서 있는데 높이 95cm, 폭 55cm의 흰 돌인데 초서로 黃腸禁山이라고 갈겨서 음각이 되어 있다. 산 자는 마모되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표석은 조선 순조 2년(1802)에 세워진 것이라 한다. 원래의 다리 이

름은 황장교(黃腸橋)였는데 황장목은 대개 관재로 이용함으로 그 뜻이 다소 불길하다하여 황정교(黃井橋)로 했다고 촌로들이 귀뜸



▲ "黃腸禁山" 표석. 영월, 수주, 두산. 1994. 3. 5

을 해 주었다. 이 지역은 소나무가 잘되는 지형을 가지고 있고 황장천의 수량은 넉넉했었는지 목재의 수운(水運)의 편리도 좋았던 모양이다.

### (3) 인제군의 황장금산의 표석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 3리 안산기슭에 절터가 있고 당시 절터의 석축(石築)의 큰 석면(石面)에 黃腸禁山, 自西古寒溪, 至東界二十里라고 3줄로 나누어 음각이 되어 있다. 첫줄은 세로로 황장금산이라고 좀 더 큰 글자로 새겨져 있고 다음 줄은 「서쪽으로는 한계리에서」라 하고 끝 줄에는 「동쪽 경계까지는 20리에 이른다」고 해서 금산의 영역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돌 면의 크기는 높이 120cm, 폭 140cm의 네모에 가까운 돌로써 석축의 상단석(上端石)이고 정남향으로 면하고 있다. 이 절은 이미 폐사(廢寺)가 되었고 주변은 소나무의 입지로서는 좋은 곳이다.

이곳에서 태백산 한계령은 멀지 않다.

### (4) 치악산의 황장금표의 표석

치악산 구룡사 입구 쪽 길가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있다. 자흑색의 매끈한 자연석의 면에 황장금표라고 횡서로 음각되어 있다. 원주군 소초면 학곡리가 행정상의 위치이다. 이 표석은 강원도 지정 기념물 3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도 계류가 있어 황장목은 물



◀ “黃腸禁山” 표석.  
인제군 북면 한계리.  
1994. 3. 4



▲ “黃腸禁山” 표석. 치악산 구룡사 입구. 1995. 1. 19

길따라 서울까지 운송되는데 편리했을 것이다. 이 지역은 소나무의 명산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팔공산의 수릉향탄금계의 표석

대구 팔공산 중턱의 큰 돌 면에 「緩陵香炭禁界」라고 음각한 표석이 있다. 이것은 수릉의 제향에 쓰일 향탄목(香炭木)을 공급하기 위해서 숲을 보존하고자 세운 표석이다. 금계(禁界)란 금산의 경계를 뜻함이다.

당시 우리나라 각처에는 많은 수의 금산, 봉산이 있었고 곳곳에 표석이 건립되었을 것이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위에 든 다섯 개로서 필자가 답사한 바 있다. 뒤에 이어 더 발견될 지도 모른다.

이곳에 아울러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 문경읍 상초리 산 42-8에 있는 「산불도심」의 표석이다. 이것은 「조령의 산불도심」 표석으로 알려지고 높이 1.5m, 폭 0.8m의 화강암에 음각된 것으로 조심(操心)을 당시의 표음



▲ "香炭禁界" 표석. 대구 팔공산. 1995. 8. 11

인 도심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 말기 즉 영조, 정조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조심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으로 삼림 보호의 표석이다. 이 시대에는 소나무 그리고 활엽수종이 있었던 것으로 한 수종을 지목해서 세운 표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조령 일대는 소나무의 산

지로서도 이름난 곳이다. 이 표석은 경상북도 지방 문화재 자료 제 226호로 1990년 8월 7일에 지정된 바 있다. 정·영조시대라면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고 그때 자연석에 우리말로 이처럼 큰 표석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큰 뜻을 가지게 한다.

## 7.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소나무

우리나라 숲의 황폐 원인에 대하여서는 설명들이 많다. 이것을 소재로 해서 한권의 책을 낸 일본 사람도 있다. 지질지형문제, 기상문제, 목재이용문제, 추운 겨울과 연료문제, 이때까지의 임업정책과 제도 그리고 단속의 강도문제 등 너무나 많다. 무엇이든 잘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항상 수다한 이유가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흥미 있는 것은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를 보면 우리나라 산

림황폐의 원인의 하나를 극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즉 그는 우리 민족은 기와와 옹기 사용 민족이고 거의 일상 사용하는 옹기(그릇)는 거의 옹기로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옹기를 구워내는 데에는 불힘 좋은 소나무를 써야 한다고 했다. 다른 나무로서는 기와장이나 옹기는 구워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옹기굴은 소나무 지대에 만들어지고 그곳의 소나무가 모조리 이용되어 산이 황폐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 그곳의 소나무 숲을 탕진 시키고는 또다시 다른 곳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산은 황폐해졌고 줄기 끝은 소나무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지원의 이러한 지적은 사실이었다고 보여 과거 우리가 우리나라 산림황폐의 원인 지적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것은 하나의 실책이었다. 그 많은 사기그릇, 질그릇, 각종 독, 기와장이 깨어지고 다시 보충되고 하는 생활문화 속에서 산의 나무는 사라져갔던 것이다. 옹기 굴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소나무 장작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소나무는 쓸모가 많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 몸은 도끼와 낫으로 찍히지 않을 수가 없었고 수를 누릴 수 없었다. 박지원은 우리나라 소나무 숲의 수난의 원인을 잘 지적해 주었다.



▲ "산불도심" 표석. 문경읍 상초리. 1995. 12. 1